

불황에...백화점 1만원 티셔츠 등장



‘문전성시’ 6일 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에서 티셔츠를 1만원에 판매하는 행사가 열려 소비자들이 몰려들었다. <광주신세계 제공>

최저가 마케팅 내세워 모객...전체 매출 신장 효과

대형마트 생필품 반값 할인...유통업체 할인 경쟁 심화

“티셔츠 한 장에 만원에 팔아요”
전통시장에서 흔히 들리는 호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주로 파는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등이 최근 ‘최저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탓이다. 최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다른 제품도 싸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퉀 저가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최저가를 내건 유통업체가 늘면서 같은 제품이지만 가격 차이가 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도 요구되고 있다. 현충일 휴일을 맞은 6일 오후, 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 일대는 몰려든 소비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처럼 많

은 사람을 모으는 원동력은 역시 최저가였다. 이 백화점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다양한 종류의 티셔츠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T-SHIRTS 페어’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디키즈, 클라이드 n.TBJ, 폴햄, 팀스 등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페어에서는 티셔츠를 단독 1만원에 균일가 판매하고, 행사기간 중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동시에 진행해 인기를 모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6일 마무리된 ‘박싱데이(BOXING DAY)’를 통해 삼겹살·목살·굴비 등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상반기 6대 히트 아이템 중 최대 60%할인 된 가격에 판매했다. 최저가 경쟁에 불을 지핀 건 대형유통

업체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는 업계 최저가로 핵심 생필품을 판매하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상품의 온라인 매출이 51.2%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마트는 지난 2월 18일 팬티형 기저귀를 시작으로 이달 11일 초코파이와 물티슈에 이르기까지 13개 상품군 48개 제품을 가격의 끝 상품으로 선정, 판매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 제품을 팔면서 전체 매출 신장세도 이끌어 냈다.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상품의 매출은 온·오프라인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하며 같은 기간 전체 신장률인 3.4%를 압도했다. 이마트몰의 해당 상품 신장률은 51.2%로 역시 전체 온라인몰 신장률(29.8%)을 상회했다. 이마트 점포 매출 신장률도 8.6%로 이마트 전체 점포 신장률(1.9%)을 크게 웃돌았다.

최저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차

대졸신입 10명중 3명 1년내 퇴사

300인 미만 32.5%·300인 이상 기업 9.4%로 대조

한국경제총조사

젊은 취업문을 어렵게 통과하고도 입사한 지 1년 안에 회사를 떠나는 신입사원이 4명 중 1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조기퇴사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3배가 넘었다.

한국경제총조사(회장 박병원)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014년 조사결과(25.2%)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기업의 퇴사율은 11.3%에서 9.4%로 낮아졌으나, 300인 미만 기업의 퇴사율은 31.6%에서 32.5%로 높아졌다.

대졸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율은 2012년 23.6%, 2014년 25.2%, 2016년 27.7%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300인 미만 기업(32.5%)이 300인 이상 기업(9.4%)보다 1



년 내 퇴사율이 월등히 높았다. 신입사원 조기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조직·직무적응 실패’(49.1%)로 조사됐다. 2014년에 비해 올해 조사에서 ‘조직·직무적응 실패’의 응답 비율이 1.5%포인트 증가한 반면 ‘급여·복리후생 불만’, ‘근무지역·근무환경 불만’이라는 답변은 각각 4.2%포인트, 1.4%포인트 감소했다. /연합뉴스

국민 90% “적합업종제도 필요”

중기중앙회 조사...58% “중소기업 산업기반 보호”

국민 대다수는 중소기업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7일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와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를 꼽은 이들이 많

았고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가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85.1%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제도 확대(47.8%)나 유지(37.3%)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하는 안에는 79.3%가 찬성했다. /연합뉴스

전문가 80%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해야”

전경련 41명 설문...44% “자산총액 5조→10조원으로”

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인 5조원을 10조원으로 올리거나 10대 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는 등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이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기타’(9.8%) 의견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 체계’, ‘기업별·업종별로 다름’ 등의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외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징역형 폐지·벌금형 기준 하향 존

지역 고성장 중소기업 수출 지원

중기공단, 수출역량 강화사업 연중 모집

중소기업집중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창범)는 6일 고성장기업의 수출지원에 힘쓰기 위해 ‘2016년 하반기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이나 매출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출확대를 위해 시행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수출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지원된다. 또 고성장기업 전용자금 융자, 신용보증기금 고성장기업 전용 보

조금 지원한다. 투자유치 실무교육이나 투자유치설명회(IR)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최근 4년간 고용이나 매출이 연평균 15% 이상 증가한 업력 4년 이상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이)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불이 썩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색은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고인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샧틈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1599-7652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